

▶1면에서 이어짐

실제로 대학기 수강신청기간에는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이 담당 교수 주위로 모여 수강가능 인원을 늘려 주십사 ‘벌고 있는’ 진풍경이 연출되곤 한다. 김상민(응용화학 2016) 군은 이번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넣지 못한 ‘미분적분학’을 수강하기 위해 직접 교수님을 찾아가 부탁드렸다. 김군은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수강인원 추가를 부탁드린 후 단과대 행정실로 가서 추가로 신청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누리 학생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 방법까지도 실패한 학생들의 경우 '수강신청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는 결국 '온라인 강의매매'란 폐단으로까지 손을 뻗게 한다.

시간표 및 정보 공유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사요'와 '팔아요'라는 키워드로 강의매매관련 게시물을 검색한 결과, 2학기 수강신청이 실시된 8월 2일부터 정정기간 마감일인 9월 7일까지 30여 건 이상이 게시됐다. 이는 이전부터 지속됐은 문제이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학원보 제1594호 6면) <대학원보 제1603호 6면> 나현호(기계공학 2016) 군은 “강의 판매투자를 위해 수강신청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면서도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이 강의를 구매하게 되는 입장이 한편으로는 이해된다”고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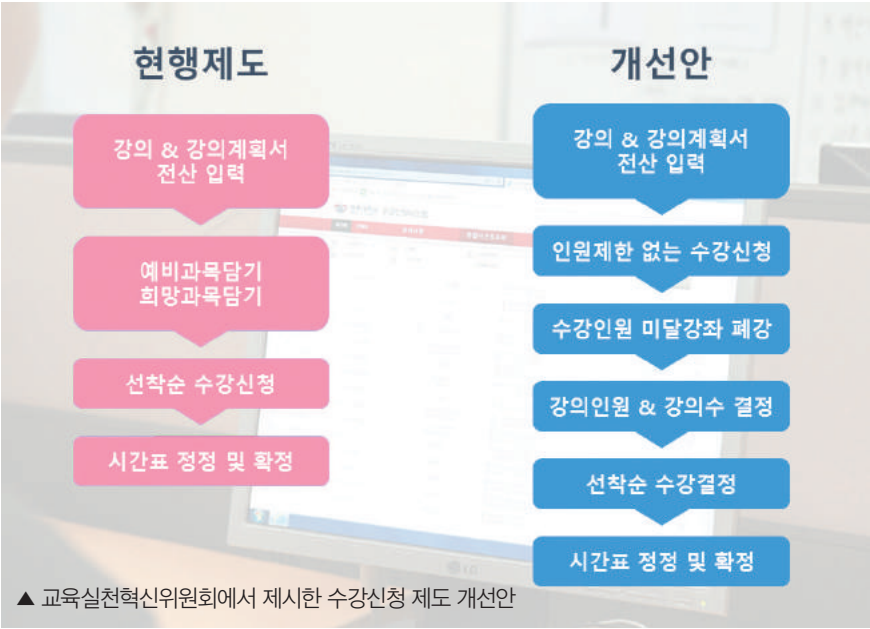
수강신청 제도변경 관련 회의 열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현재 학교 측에서는 다시 수강신청 방법 변경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우리학교 교육실천혁신위원회에서는 수강신청 방법 변경에 관한 안건이 언급됐다.(사진)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수감신청 방법 개선안은 ▲학과별 개설 강좌 및 강의계획서 전산 입력 ▲수감신청 ▲개설 강의 수 조절 ▲수감신청 변경 및 확정 과정이다. 개선안에서 현행 제도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희망과목담기가 사라지고, 전공선택과 교양과목에서 수감인원 제한 없이 수감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강신청 후 강의 수 조절 단계에서 신청 인원이 적은 강좌는 폐강되고, 이외의 강좌에서 담당 교수가 수용 가능한 최대 강의 인원과 강의 수를 결정하게 된다.

담당교수가 수강신청한 학생을 모두 담당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기존과 같이 선착순으로 수강 여부가 결정된다. 수강신청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 조영욱(의예과)교수는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최대한 개설해



주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목표"라며 "수강신청에 관한 학생들의 근본적인 불만을 해결해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수의 강의인원 수용여부가 현실화
 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강신청이 이루어
 진다면 무분별한 수강신청이 될 가능성과
 담당교수가 신청한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
 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현행 제도의 경우
 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중국어학과 김 부회장은 “단지 희망과목
담기와 수강신청 인원 제한을 없애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라며 “개선안처럼 시행
된다면 수강에 실패한 학생들은 수강신청
‘플랜B’조차 건지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의 수강인원이 보장돼야 하는 특수 강의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준영(작곡과)교수는 “예술, 체육 등

소수인원 대상 강좌의 경우 인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조정이 필요하다"며 "학과별로 특수 사항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 대학의 수강신청 제도

마일리지 선택제(연세대학교): 과목 중요도에 따라 마일리지 배분 가능

연세대학교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마일리지 선택제'를 시행 중에 있다. '마일리지 선택제'는 ▲수강가능학점의 4배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부여 ▲신청할 과목의 중요도에 따라 마일리지 배분 ▲각 과목별 배분된 마일리지 포인트에 따른 수강여부 결정의 순서로 이어진다. 마일리지 선택제는 현재 2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이승윤(국어국문학 2016)군은 "내년부터 손이 떨어 수강신청을 망칠 일은 없을 것 같다"며 "꼭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맥스-마일리지를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등 마일리지 선택제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맥스-마일리지: 한 과목에 배분할 수 있는 최대 마일리지. 맥스-마일리지를 투자했다고 해도 맥스-마일리지를 투자한 학생들이 수강가능 인원을 초과한 경우 모두가 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강우선순위제도(숙명여자대학교): '선착순'
이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

숙명여자대학교는 '수강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수강신청을 진행한다. ▲교양과목은 학년(4학년-1학년-3학년-2학년)→직전학기 이수학점→성적순 ▲전공과목은 제1전공과→복수전공(동일 조건에서는 교양과목에서의 조건을 따름) 순서로 학생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수강신청기간이 끝난 후에 우선순위에 따른 수강여부가 결정된다.

숙명여자대학교 학사지원과 관계자는 “타 학교와 달리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효율적이고 여유롭게 할 수 있다”며 “수강신청 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수강바구니제도(건국대학교): 사전 신청을 통한 효율적인 수강신청

건국대학교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바구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 학교의 희망과목당기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강바구니제도는 담은 과목의 인원이 수강인원보다 적을 경우 해당 과목이 자동으로 수강신청이 된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건국대학교 박시형(전자공학부 2016) 군은 “수강바구니제도를 통해 미리 수강신청이 된 과목들이 있어 수강신청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며 “시간표를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상황은?

수강신청 대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

앞서 제시된 우리학교의 수강신청 방법 개선안은 현재로서 확정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캠퍼스 학사지원과 김경희 과장은 지난 회의에서 “수강신청과 같은 중요한 시안은 더 많은 학생들과 직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오려면 보다 집중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수차례 수강신청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은 수강신청에 대한 부담과 함께 개강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강신청 관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수강 인원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언제까지 피상적인 접근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방관할 수는 없다.

현행 수경신청 제도의 맹점을 명확히 파악해 학생들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어 ·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Tel. 02/961-0081~2

국제교육원(서울) • http://www.iie.ac.kr

● 등록기간

장규 등록기간 : 영어/제 2외국어 : 2016.10.10(월) ~ 2016.10.28(금)

추가 등록기간 : 영어 : 2016.10.31(월) ~ 2016.11.11(금)

제 2외국어 : 2016.10.31(월) ~ 2016.11.04(금)

● 강의기간

장규 외국어강좌(6주) : 2016.10.31(월) ~ 12.09(금)

● 레벨테스트

영어회화 : 10.26(수), 10.27(목) 17:30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 10.26(수) 17:15

테스트 후 반 배정 : 2016.10.28(금) 저녁 6시 이후 www.iie.ac.kr에서 확인!

● Registration

English : Oct 10th (Mon) – Nov 11th (Fri)

Foreign language : Oct 10th (Mon) – Nov 04th (Fir)

Official date : Oct 31nd (Mon) – Dec 09th (Fri)

● Level Test into Operation

English : Oct 26th (Wed), 27th (Thu) at 17:30

Japanese, Chinese, Spanish : Oct 26th (Wed) at 17:15

Confirmation : Oct 28th (Fri) after 18:00 at www.iie.ac.kr

● 강의시간표

	7:45~8:45	9:00~10:20	10:20~11:00	16:00~16:30	16:30~17:00	17:00~17:30	17:30~17:50	18:00~18:30	18:30~18:50	18:50~19:00	19:00~19:20	19:20~19:30	19:30~19:50	19:50~20:00	20:00~20:20	20:00~20:50	
월	영어								영어								
	Ted Talk(초급)								일본어(초급/고급)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초급1)							프랑스어(초급3-A)								
화	스페인어(초급2)			스페인어 Book Club					베트남어(초급1)								
	영어								스페인어(초급2)					스페인어(초급1)			
	Ted Talk(초급)								이탈리아어(초급1)								
	일본어								일본어(초급2/중급1/중급2)								
수	중국어								중국어								
						프랑스어(초급1)			프랑스어(초급3-B)								
									베트남어(초급2)								
								독일어(초급1)						독일어(초급3)			
목	스페인어(초급1)					스페인어 Video-Debate			Ted Talk(초급)/Book Club(초급)								
	영어								Academic Writing(중급)								
	Ted Talk(초급)								스페인어(초급1)					스페인어(중급2)			
	일본어								영어								
금	중국어	중국어(초급1)							일본어(초급/고급)								
									중국어								
						프랑스어(초급1)			프랑스어(초급3-A)								
									베트남어(초급1)								
토	스페인어(초급2)								독일어문법								
	영어								이탈리아어(초급1)								
	Ted Talk(초급)								Ted Talk(초급)					스페인어(중급1)			
	일본어								스페인어(초급2)								
일	중국어	배싱중국어							영어								
									일본어(초급2/중급1/중급2)								
									중국어								
						프랑스어(초급1)			프랑스어(초급3-B)								
미									베트남어(초급2)								
									독일어(초급1)					독일어(초급3)			
	스페인어(초급1)					스페인어 Video-Debate			스페인어(초급1)					스페인어(중급2)			
	배싱중국어								독일어문법								